

서  
평

원영선 소설과 여성의 역사 다시쓰기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 소설과 여성의 역사 다시쓰기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원영선

서울여자대학교 부교수

학생들에게 소설을 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로, 언어 바깥의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 전개로, 그렇지 않으면 언어로 된 인공적 가공물의 성장으로 읽으라고 가르칠 때, 우리들 자신이 바로 이런 형태의 권력을 행사한다. (502)

낸시 암스트롱(Nancy Armstrong)의 『욕망과 가정소설: 소설의 정치사』(*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1987)가 (영미)소설 연구와 페미니즘문학 연구에서 지니고 있는 비평(사)적 위상과 무게를 생각할 때, 그것이 세상에 나온 지 30여 년 만의 국내 첫 번역서,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sup>1</sup>의 출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저자의 독특한 문체와 여러 시대와 다양한 비평·사상가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비평 용어 사용으로 인해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독서경험을 생각하면 번역 과정의 지난함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터라, 두툼한 번역서에 담긴 역자들의 노고 앞에서 그 반가움은 두 배가 된다.

책 표지 뒷면에 인쇄된 앨런 화이트(Allon Wite)의 추천사, “소설 발생에 관한 대답하고 독창적인 책”은 출간 당시부터 『소설의 정치사』가 영미비평계에 일으켰던 큰 반향과 비평사적 의미를 잘 요약해준다. 무엇보다 그것은 영국 소설의 발생을 중산계급의 성장과 문해력 증가, 그로 인한 대중독자의 출현과 연결 짓고 드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를 그 시발점으로 삼았던 이안 와트(Ian Watt)의 토대 결정론적 문학사<sup>2</sup>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소설이 영국 중산계급의 헤게모니를 견인하고 승리로 이끈 권력 기제의 중심에 있었음을 밝히는 ‘문학사 다시쓰기’를 제안한다. 크게 보아 이러한 시도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성의 역사』(*History of Sexuality*)에 기대어 성

---

1 낸시 암스트롱, 오봉희·이명호 역, 『소설의 정치사: 섹슈얼리티, 젠더, 소설』, 그린비, 2020. 이후 『소설의 정치사』로 표기.

2 Ian Watt,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London: Chatto & Windus, 1957.

담론의 권력/통제 기제로 소설사를 재구성하는 기획이랄 수 있을 텐데, 영미문학 비평에서 푸코의 이름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1980년대의 비평적 조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가진 비평사적 의의를 말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sup>3</sup>

『소설의 정치사』가 지닌 독창성과 담대함의 또 다른 원천은 그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 페미니즘비평 경향을 비판하며, 소설의 역사와도 뗄 수 없이 엮여있는 ‘여성 역사 다시쓰기’를 주창하는 데 있다. 소설이 역사의 사료이거나 문화적 생산물이기 이전에 담론 투쟁에서 승리의 향방을 가르는 “행위자(agency)”라면, 여성 또한 소설의 단순한 소재, 혹은 담론 효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젠더화된 근대적 주체의 담지자로서 소설의 담론 기제에서 핵심적 권력으로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 역사 서술에서 권력과는 가장 멀리 있어 보이던 여성과 여성의 글쓰기는 발굴과 폭로, 재평가의 대상을 넘어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199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페미니즘비평과 소설연구에서 여성과 (성)담론 이슈를 다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책의 “무시하지 못 할” 존재감도<sup>4</sup>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접근을 가능케 했던 지평의 확장과 도전적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나는 억압당하고 침묵당한 소수자의 관점에서 여성의 역사를 보지 않는다”(58)는 도발적인 문구로 요약되곤 하는 암스트롱의 ‘여성 역사 다시쓰기’는 이전의 여성주의적 역사서술 방식에 던지는 도전장으로 널리 회자되면서, 페미니즘비평의 한 획을 긋는 이 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30여 년의 시차 때문에 “책에 제시된 논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독법이 얼마만큼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것의 “문제의식이 생산적인 논쟁거리를 안겨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역자의 평가대로(521), 이 책의 의의가 비평사적 성과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소설이 근대제도

---

3. 갤러거 또한 이 책이 푸코 이론을 문학과 여성의 주제에 적용하여 책 전체의 논의로 삼은 최초의 연구서임을 지적한다. Catherine Gallagher, “Review: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 Political History of the Novel* by Nancy Armstrong,” *Victorian Studies* 32(3), 1989, p.412.

4. Leila Silvana May, “The Strong-Arming of Desire: A Reconsideration of Nancy Armstrong’s *Desire and Domestic Fiction*,” *ELH* 68(1), 2001, p.267.

로서 정착되고 문화권력의 위상을 얻어가는 과정과 방식은 소설(사)연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고, 근대와 근대성을 이루는 성적 담론기제와 근대적 개인/주체, 그리고 책/글쓰기 관련 이슈들은 지금도 문학비평과 문화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MLA 연례 학술대회에서 『욕망과 가정소설』 이후 30년”을 주제로 소설연구학회(Society for Novel Studies)의 특별 세션을 조직한 조다단 아크(Jonathan Arc)가 책이 가진 “생산적인 영향력”과 “지속적인 현재성”을 기획 이유로 꼽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sup>5</sup>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이 책이 지닌 “생산적인” 의미는 199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른바 ‘문화적 전회(cultural turn)’로 불리는 비평 흐름의 큰 맥락에서. 그리고 그러한 비평의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인 ‘의심의 해석학’의 자세로 책의 주요 논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시간을 버텨[낸]” 통찰을 발견하는 작업에 있을 것이다.

암스트롱이 다시 쓴 근대 역사의 문은 ‘중산층 여성의 글쓰기’를 근대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본 울프(Virginia Woolf)의 유명한 문구로 열린다.<sup>6</sup> 그 어떤 문학사에서도 제대로 묻거나 답해본 적 없었던, “왜 여성들이 18세기 말에 괜찮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19세기 동안 뛰어난 소설가가 되었으며, 그 기반 위에서 근대 시기 동안 예술가의 위상을 획득하게 되었는가”를 새롭게 묻고 답하는 일이 기획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20). 1990년대 이후 문화연구의 단골 주제이기도 한 근대 활자문화와 대중독자의 성장 역사에서 독자이자 작가였던 중산층 여성은 빠지지 않는 관심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장된 독서시장에서 여성이 유일한 수혜자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이 시기에 터져 나온 여성의 ‘글쓰기 욕망’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억압하거나 왜곡시키는 사회적 제약과 대비하여 읽어

5 발표 논문들은 이듬 해 *MLQ(Modern Language Quarterly)* 특집호로 발간되었다. Jonathan Arc, “Introduction: *Desire and Domestic Fiction* after Thirty Years,” *MLQ* 80(1), 2019, pp.4-5.

6 책의 서론은 울프의 글을 인용한 ‘제사’(題辭, epigraph)로 시작한다. “18세기 말 무렵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 그 변화란 중산층 여성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15)

내는 독법은, “[여성의] 욕망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29) 실제로는 여성 글쓰기의 “사회적 조건이 역사를 통틀어 별로 변한 적이 없[는]”(22) 현실을 탈역사화·탈정치화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 책을 추동하는 첫 질문에 담긴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딜레마와 신자유주의적 문화 정치에 동시에 맞서야 하는 오늘날 페미니즘의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조선정이 진단하는 바대로, “권력에서 여성이 배제되어서가 아니라 그 권력이 젠더화된 성격을 띤다”는 구조화된 조건으로부터 탈각된 배제만을 문제 삼거나, “여성의 ‘경험’이 존재론이 되고 ‘관점’이 진실이 [되고], 그 경험과 관점이 ‘여성주체’에 통합되어 여성의 권리로 법에 새겨질 때,” 페미니즘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성 정치’에 끌려들어 가거나 “본질론과 결정론을 선동하는 감성 정치”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

희생과 배제의 역사서술에서 경험과 관점에 의해 ‘주체화’되는 대신, 근대 ‘중산층 여성의 글/소설쓰기’라는 말 속에 구체적인 시기와 계급, 젠더, 그리고 글쓰기 주체를 새롭게 소환하여 그것을 역사화하고 정치성을 되돌려 놓는 책의 핵심적 주장은 “근대적 개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이었다”(136)는 한 문장으로 일갈될 수 있다. 암스트롱에 따르면, 근대적 주체는 개인을 신분과 혈통, 지위에 따라 구분하는 전근대적 가치에 맞서 개인의 척도를 심성의 자질과 내면의 깊이에 둔 근대적 가치가 거둔 승리의 결과물인 동시에, 전근대적 문화의 조직 논리였던 세대와 가계의 가능성을 젠더 차이가 압도하여 대신하게 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견인한 것은 다름 아닌 이성애와 결혼을 근간으로 주조된 근대 “가정여성”이다. 17세기 말 쏟아져 나온 여성 품행지침서와 교육서, 그리고 이어지는 18~19세기 소설은 여성을 매력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도록 만드는 자질을 담론화했고, 가정을 관리·감독하고 취향을 형성하는 등에서 규범적 준거를 이루는 일련의 규율 담론적 권위를 여성에 새겨 넣음으로써, “가정여성”이 표지하는 여성적 자아가 근대 개인의 주체를 주조해 낸 지배적 담론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주체를 통해 전근대적 지배 가치를 대체하

7 조선정, 「주체, 차이, 국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진화와 지속 가능한 성 정치의 모색」, 『안과밖』 제45호, 영미문학연구회, 2017, 33-34쪽.

고, 중산계급의 가정 안으로 담론화된 개인을 밀어 넣음으로써 계급 갈등을 봉쇄하거나 포섭하는 담론기제의 최전선에서 “가정여성”은 중산계급의 헤게모니와 자유주의 수사를 견인한 권력 생산의 핵심이 된다.

가정과 여성, 소설, 담론권력을 연결하는 논리전개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여성적 글쓰기의 재현이 사회적 실체가 되기까지 “1세기 이상의 시차”(153)가 있다는 암스트롱의 주장이다. 근대 역사가 경제체제와 정치권력의 변화,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의 재생산 과정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변화들을 드러내는 사회·심리적 실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것을 사유하고 설명하며 중국엔 묶어내는 문화담론이 앞서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것이다. 조용 보다는 불일치, 혹은 선행을 강조하는 이 같은 설명은 문화담론이 가진 “재현의 생산성”을 부각하고, ‘언제나 이미’ 젠더화되어 있으며 그 출발부터 규율/규범 기제 위에 서있는 근대 권력체제의 속성과 작동 방식을 잘 드러내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문헌적 증거에 기대어 ‘선후’ 관계를 강조하여 담론 권력을 지나치게 앞세울 때, 여러 겹의 담론화 기제를 통과하며 추상화되어 온 근대적 개인의 싸움터를 재현의 무대에 가두는, (예컨대, 성소수자들의 “재현의 정치학”이 노정했던) ‘포획’의 논리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르네상스문학 연구자들이나 월러스틴(Emanuel Wallatin)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론’이 주장하는 ‘장기 16세기’ 논의들이 ‘근대의 시작’을 18~19세기보다 훨씬 앞당겨 보고 있음을 생각하면, 암스트롱이 말하는 사회적 ‘실체’ 그리고 그것과 글쓰기가 갖는 상호의존적인 역사 역시 재역사화에 열려있다고 보는 편이 오히려 정치적 역사화를 강조하는 그의 통찰에 값하는 ‘다시 읽기’의 관점일 수 있다.

소설의 소재이자 독자, 그리고 작가였던 여성을 “희생의 수사”(504)에서 구해내어 근대 가정 이데올로기와 개인주의적 주체담론의 행위주체로 위치 지움으로써 이 책이 열어놓은 비평적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남는 마지막 의문은 그렇게 젠더화된 주체가 얻은 담론적 권위가 결과적으로 실제 남성과 여성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라는, 어찌 보면 소박하기 짝이 없는 질문으로 향한다. 이러한 질문의 답 역시 책이 다루고 있는 재현된 삶 속에 있을 텐데, 가령, 암스트롱이 읽어내는 수많은 소설 속 재현에서 가정여성 담론으로 향하는 내과나, 담론 변방에서 분투하는 저항의 자취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한 가지 예로 살펴보면, 「봉쇄된 자아」라는 소제목으로 제시된 암스트롱의 분석에서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은 『에마』(Emma)의 하이베리(Highbury) 공간을 신분과 재산을 삭제하는 중산계급의 “언어 공동체”(321)로 주조한다. 그렇게 소설에 구현된 “언어 공동체”는 예의바른 언어를 내면을 읽어내는 문화·언어적 문해력과 등치시키는 방식을 통해 충돌하는 성적 욕망과 계급갈등을 여성적 글쓰기/발화의 자아 속으로 통합해 넘으로써 소설 담론의 고도화된 봉쇄 전략을 수행한다. 그러나 소설의 언어적 관심과 공동체적 지향성을 짚어내는 암스트롱의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 틀에서는 소설에 재현된 “언어 공동체”의 봉쇄 전략을 비껴가는 언어들과 그를 통해 오히려 선명히 드러나는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 혹은 개인주의적 주체의 내면 밖으로 도드라져 나와 ‘언어 공동체’ 내부를 확장시키고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를 거스르는 가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소설의 다른 결들을 읽어낼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책의 거대 서사가 개별 텍스트의 담론적 저항 공간을 스스로 ‘봉쇄’하는 셈이다.

암스트롱이 책 말미에 지적하듯이, “가정성의 이상은 사실성은 떨어지고 허구성이 커지면서 더 강력해졌을 뿐”(497)이며, 여전히 “근대 가정을 강박적으로 (...) 재생산”(498)하는 문화도 성업 중이다. 또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성이 기호로 떠돌고, 규율과 규범의 권력이 ‘자기 개발’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한다. 이는 책의 발간 후 30여 년 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책의 여러 열쇳말이 수많은 연구에서 거듭 등장하게 되었고, 될 것임을 방증하는 오늘날의 모습일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의 서두에 인용된 암스트롱의 성찰적 경고처럼, 소설 속 인물의 성장이나, 언어 밖에서 담론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역사, 혹은 언어와 기호로 가공된 구조물로만 텍스트를 읽을 때, 문학 텍스트를 읽고 가르치는 연구자인 동시에 교수자로서 그러한 문화 기제의 공모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이 책이 지닌 다른 차원의 “지속적인 현재성”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젠더 담론권력의 봉쇄와 은폐에 머무는 대신, 문학적 재현과 담론의 저항 공간을 찾고 만들어가는 작업 또한 『소설의 정치사』의 ‘비판적 다시 읽기’가 제공하는 유익의 또 다른 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 관계”와 “저항”의 사유를 이야기하는 푸코의 메시지는 이 책의 “생산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다시 읽기’



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항 없는 권력 관계는 없다. 저항은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형성된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 더 사실적이고 유효하다.”<sup>8</sup>

---

8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 Other Writings 1972-1977*, ed. & trans.,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p.142.